

# ‘2004년 전기의날 기념’ 전력기술정책 세미나 개최



전기의 날 기념 '전력기술정책 세미나'

**대한** 전기협회는 국가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그 의미를 선양하기 위하여 제정된 '전기의 날'을 맞아 '전력기술 정책 세미나'를 4월 9일 오후 2시부터 한국전력공사 을지로 별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정부관련 인사를 비롯해 각종 위원회 위원, 회원사의 업무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기협회는 매 홀수년도에는 '전기산업진흥축진대회'를 개최하여 정부 훈·포상을 수여하고, 매 짝수년도는

'전기의날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력산업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과 이슈화된 내용을 주제로 설명을 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과학기술부에서 '국가과학기술 정책방향',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에서 '전력산업 정책방향', 협회 전력기준처에서 '기술기준의 정립 및 발전방향', 대한전기학회에서 '극저주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와함께 협회 장학회에서 전국 전기공학과 원자력공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전기협회

에 대한 업무 현황도 소개했다.

백영기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세미나는 국가산업발전과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전기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그 의의를 선양하기 위하여 제정된 ‘전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협회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전기사업법상 기술기준 체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편 발전시켜 나가고,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단체표준인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4단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전력산업의 기술자립 기반을 공고히 하여 전력설비의 안전성과 경제성 확보에 기여코자 하는 한편 전기부문 표준품셈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전면적으로 제·개정하여 전기공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사비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코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원교육훈련원에 최초로 변전 전공 양성 과정을 신설하는 등 고급기술인력과 특수기능인력의 양성 등에 힘을 기울일 것이며, 전력분야 B2B 기반 구축, 산업 정보 수집 등으로 정보서비스 업무를 활성화하고 전기상담실 운영 및 조사연구사업을 통해 공익 향상에 기여토록 할 것이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전력 기술을 전력산업계 스스로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덧붙였다.

### 〈주제발표 요지〉

▲ 신준호 과학기술부 정책총괄과 서기관(국가기술혁신 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 정부는 국가혁신체제를 구축하여 국민소득 2만불 시대의 선진경제·사회를 구현하고 과학기술자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평가와 국민 생활 속의 과학기술을 위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다.

특히 2004년을 ‘과학문화의 해’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Science Korea 운동’을 범국민·사회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갈 계

획이다.

과학기술 친화적 사회·문화 시스템 정착을 위해 과학기술인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가 필요하다.

▲ 박천진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장(전력산업 정책현안) = 전력의 합리적인 사용을 통해 최대전력수요를 억제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과 설비투자비의 절감을 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15년까지 수요관리정책을 적극 추진, 1031만kW의 전력수요를 감축시킬 계획이다.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과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수출기반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의 해외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관련업체와의 동반진출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할 것이다.

특히 국제적 인지도가 높은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컨소시엄 구성 등 전력 관련 업체간 역할분담과 전략적 제휴 확대로 해외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 김태수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총괄과장(산업표준화 정책방향) = 앞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국가표준(KS)를 확립하고 정부규격의 통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표준 채택을 위한 능동적인 대응을 하고 민간(단체) 표준의 활성화 체계 정립을 하며 각국의 기술장벽(TBT)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다.

이와함께 공인시험검사기관의 능력을 제고하고 공산품 안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 이광섭 대한전기협회 기술·홍보처장(전력신기술 지정제도와 개선방향) = 전력신기술 지정제도는 민간업체 또는 개인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서 국내 전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 대상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이다.

신기술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보호되며, 기술개발자는 신기술 사용자에게 사용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자격심사에서 신기술 배점을 적용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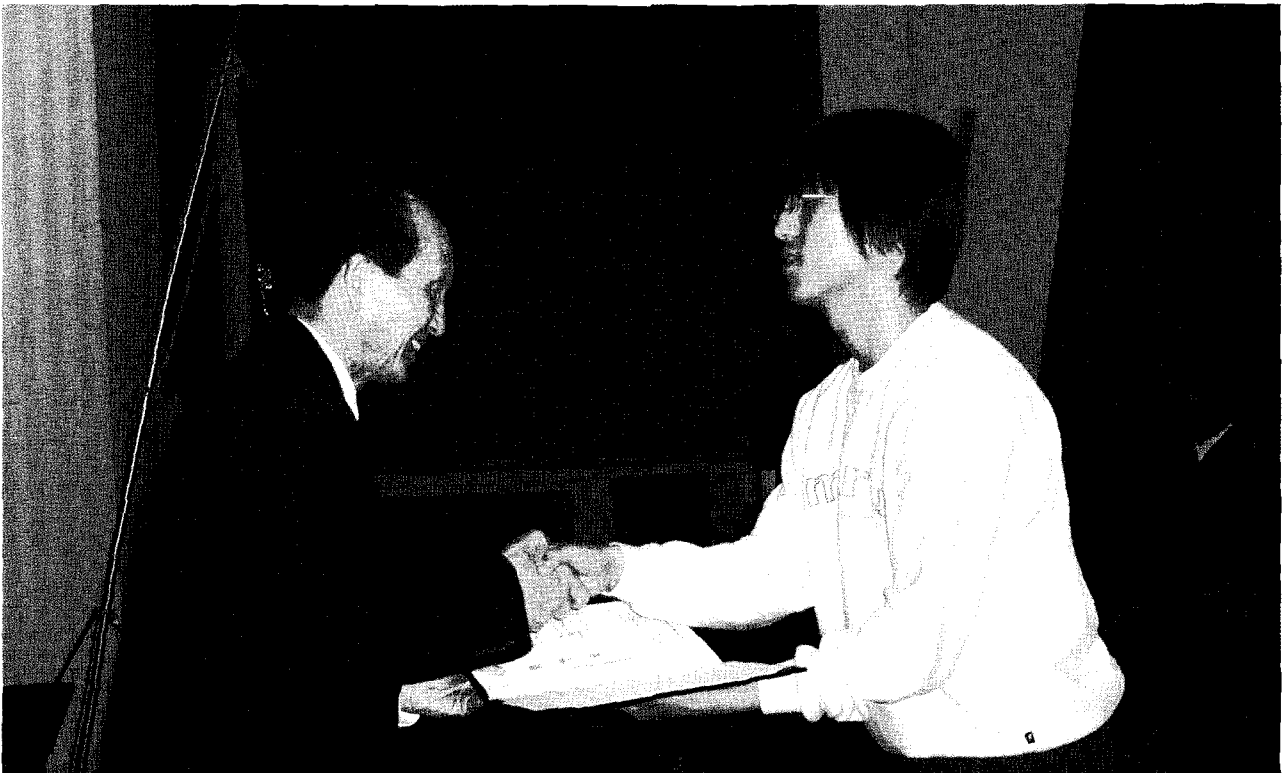
산업자원부에서 지정·고시된 신기술은 대한전기협회에서 유지·관리한다. 산업자원부와 대한전기협회는 이 같은 전력신기술 지정제도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선안은 산업자원부와 대한전기협회가 병행해 처리해 오던 절차를 대한전기협회로 단일화하고, 다만 관보공고와 지정고시 및 지정증서 교부는 산업자원부가 그대로 시행하며 지정대상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개량한 전력기술을 그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기자재의 제조기술, 전력용 기자재의 부품 및 공법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심사위원의 요청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해 오던 현장조사를 앞으로는 모든 기술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오는 6월 이후 최종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백영기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이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있다.